

기사입력: 12.10.09 16:25

인쇄하기

북가주 회계법인 '새 바람'... 'CKP' 아시아계 최대 회계법인으로 급부상



미국내 최대 아시아 회계법인으로 급부상한 한인 업체가 북가주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 업체는 바로 '최 김 앤 박'(Choi Kim & Park.이하 CKP) 회계법인. 2005년에 설립된 후 불과 4년만에 캘리포니아, 앨라배마, 조지아 등 3개주에 7개의 사무실을 열고 총 직원수가 100여명에 이르는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CKP는 미 주류회계분야에서 소위 '빅4'로 꼽히는 딜로이트 투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어너스트&영, KPMG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장기업 감사와 다국적 기업 서비스 분야에까지 진출하며 회계법인 시장의 '무서운 신예'로 떠오르고 있다.

CKP는 이같은 성장에 발맞춰 최근 2명의 한인 1.5세 파트너를 새로 승진, 임명하면서 또 한 차례의 도약을 꾀하고 나섰다.

그 2명의 새로운 파트너중 한사람이 북가주의 로스알토스, 마운틴 뷰 사무실을 책임지고 있는 크리스강 (40·한국명 강 철) CPA이다. 나머지 한 명은 알라바마 사무실을 책임지고 있는 제임스 김(41·한국명 김영진) CPA.

북가주 파트너로 승진한 강 CPA는 미 최대규모의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

서 수년간의 경력과 12년간의 IT업체, 생산업체, 투자사 뿐만 아니라 게임업체까지도 업무를 두루 거친 회계분야의 정통파.

이미 경영과 마케팅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강씨는 4년전 CKP회계법인에 합류한후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인 로스알토스에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기존의 매출을 두 배로 끌어 올리는 획기적인 성과를 올린 인물이다.

CKP측이 이번 강씨의 파트너 승진이 북가주 지역 회계법인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가주지역 CKP를 총괄하고 있는 박경욱대표는 “한국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 파트너를 중심으로 북가주 지역의 CKP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 전에 국제회계 및 세무에 관한 충분한 준비로 현지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CKP가 교두보를 마련해주는데 최대한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CKP는 미국내 5대(세계 6대) 회계 법인인 RSM 맥글래드리의 회원사로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70여개국 100여개 멤버 회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내에서 상장기업 감사를 하는 유일한 아시아계 회계법인인 CKP의 주요 고객은 리퀴드 메탈을 포함, 미국의 상장기업들과 금호타이어, 넥슨타이어, 풀무원, 아시아나항공, 삼성 SDS, NHN, H마트 등 굵직한 한국계 대형회사들을 고루 망라하고 있다.

한편 CKP가 미국내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곳은 북가주의 마운틴뷰와 로스 알토스를 비롯해 남가주의 LA, 샌디에고, 어바인, 그리고 알라바마 몽고메리, 조지아 라그란지 등이다.

■CKP 북가주 사무실

▷마운틴뷰 오피스: (650)937-1040
1580 W.El Camino Real #14, Mountain View

▷로스알토스 오피스:(650)967-1003
4962 W. El Camino Real #206, Los Altos

김동규 기자

